F1대회 운영구조 어떻게 바뀔까

KAVO 역할·업무 줄이고 조직위 컨트롤 타워 기능

박준영 전남도지사가 F1(포뮬러원) 국제자동차경주대회와 관련, 조직 쇄신에 대한 적극적 의지를 잇따라 피력하면서 향후 운영 방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朴지사 "구조적 문제" 조직 쇄신 잇단 피력

수익사업·마케팅 등 전남도서 직접 나설 듯

◇F1 대회 운영 조직 이대로 안된다=박 지사는 1일 열린 간부회의에서 "올해 대회는 경주장 건설 공사가 늦어지면서 혼란이 빚어졌다"면서 "구조적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다, 고칠 것이다"고 밝혔다. 조직을 새롭게 바꾸겠다는 목표를 분명히 한 셈이다. 박 지사는 앞서 "좀더 체계적으로 일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 부족한 부분은 2선·3선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정례조회), "조직을 재정비하고 잘못된 부분은 과감하게 도려냈겠다, 구부러진 부분은 반드시 바로잡겠다"(공무원노조 홈페이지)고 강조했다.

특히 이날 간부회의 발언은 경주장 건설 지연 문제부터 입장권 판매, 교통·수송지원 대책 등 F1 대회의 '총체적 부실' 원인이 경주장 건설 지연에 있음을 내비친 것이어서 경주장 건설 업무를 책임진 F1 대회운영법인인 KAVO의 책임론이 거세질 전망이다. 경주장 건설 지원 업무를 맡은 전남도 F1 지원본부도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박 지사는 또 "내년에는 경주장 건설 문제가 없어지는 만큼 관람객 유치 및 마케팅(기업 스폰서십 유치)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고 강조한 뒤 "(실·국장 등이) 관심을 갖고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KAVO가 입장권 판매 및 스폰서십 유치 등 수익사업과 마케팅 프로모션을 담당하고 있는 만큼 더이상 KAVO에 맡겨두지 않고 전남도가 직접 나서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대목이다.

전남도 안팎에서는 KAVO의 안이한 행사 준비에 대한 책임을 물어 F1대회 주관기구인 국제자동차연맹(FIA)이나 FOM과의 연락망 정도로 역할을 대폭 축소하겠다는 뜻으로 해석이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따라 KAVO와 조직위원회, 지원본부로 나뉜 대회 운영 구조개편 속도가 한층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

◇어떻게 바뀔까=개편의 핵심은 KAVO 업무를 얼마나 축소하느냐와 조직위원회가 어떻게 컨트롤 타워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느냐가 될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현재로서는 KAVO를 F1 대회를 주관하는 국제기구와의 연락망 정도로 축소하고 대회 총괄 운영은 조직위가 맡아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불투명한 대회운영 방식을 공개적으로 바꿀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이렇게되면 공적 조직이 현재보다 크게 들어간다.

또 민간조직으로만 운영하는 방식, 카보 폐지론 등도 제기되나 현실적으로 힘들다는 시각이 많다.

한편, 전남도가 최대 지분을 갖고 있는 민간 기업이라도 6개 출자사들의 의견을 듣고 주주총회를 거쳐야 하는 등 충족돼야 할 조건이 많은데, KAVO의 반발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현실화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지적도 많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F1 경주장 우회도로 내년 대회 이전 모두 완공"

전남도 F1 교통대책

전남도는 1일 "내년 F1대회 개막 이전에 영암 서킷으로 갈 수 있는 우회도로를 모두 완공, 관람객들의 교통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승현 전남도 건설방재국장은 이날 기자 간담회에서 "목포나 광주에서 F1경주장으로 가려면 현재 영산강 하구언 1곳 밖에 없는 교통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우회도로 사업을 추진 중"이라며 "2012년 상반기 완공예정인 목포대교를 내년 F1대회 이전에 완공, 서해안이나 광주방면에서 오는 차량을 목포시내로 들어오지 않고 바로 경주장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렇게되면 목포나 광주에서 F1경주장으로 가기 위해 영산강 하구언으로 집중된 교통량이 대거 분산되게 된다.

그는 또 "수도권과 광주방면에서 오는 교통수요를 분산하기 위해 조성 중인 국도 2호선 대체우회도로도 내년에는 대회 전까지 완공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도로는 서해안고속도로에서 목포시내를 통과하지 않고 무안 남악신도시를 거쳐 바로 경주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설계된 F1 교통분산대책의 핵심도로지만 예산부족으로 올해 개통이 미뤄졌던 도로다.

이외 F1경주장 바로 옆을 지나며 영암과 해남을 잇는 국가지원지방도 49호선 확·포장 공사도 내년에는 완공된다고 덧붙였다.

전 국장은 "올해 예산심의 과정에서 이들 도로 사업비를 반드시 확보해 내년 대회에는 교통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제18차 이산가족 상봉행사 1차 마지막날인 1일 오전 작별상봉을 마친 북측 최고령 상봉자인 리종렬씨(90)가 금강산면회소를 떠나기 앞서 갓난아기때 헤어졌던 남측 아들 이민관(61·남측이름 이명관)씨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연합뉴스

"이제가면 언제…" 눈물의 이별

이산가족 1차상봉 마쳐

3~5일 사흘간 2차 상봉

60년만에 감격적으로 만났던 남북의 이산가족들이 2박3일의 짧은 상봉 일정을 마치고 다시 기약 없이 헤어졌다.

'1차 상봉'(10.30~11.1)에 참가했던 북 97명, 남 436명의 이산가족들은 1일 오전 9시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에서 1시간 동안 '작별상봉'을 하는 것으로 아쉬운 재회를 마무리했다.

이산가족들은 상봉장에 들어서면서부터 눈물을 흘리기 시작해 행사 내내 좀처럼 그치지를 못했지만 정해진 시간이 다 되자 할 수 없이 서로 건강을 빌며 다시 만날 것을 기약했다.

작별상봉이 끝난 뒤 북측 가족들이 버스 3대에 나눠타고 떠날 때도 남측 가족들은 눈물 속에 배웅을 했고, 일부는 불편한 몸을 이끌고 버스를 따라가며 눈물을 뿌리기도 했다.

남측 가족들은 오후 1시께 금강산 지구를 떠나 육로로 우리 측에 돌아왔다.

남북의 이산가족들은 지난달 30일 금강산 지구에 도착한 이후 두 차례의 단체상봉과 한 차례의 개별상봉을 하고 점심과 저녁 식사도 한 번씩 같이 했다.

3~5일 사흘간 진행될 '2차 상봉'에서는 남측 이산가족(상봉신청자) 94명이 역시 금강산지구로 가 북측 이산가족 203명을 만난다.

당초 대한적십자사는 상봉신청자 가운데 최종 100명으로 추려냈지만 건강 등 개인사정으로 6명이 포기했다.

2차 상봉에 참가할 남측 가족들은 2일 속초 한화콘도에 모여 등록, 기본교육 등의 절차를 밟은 뒤 3일 오전 금강산 지구로 향한다.

2차 상봉에도 1차 때와 동일하게 4차례의 개별 및 단체상봉과 2차례의 공동식사 일정이 잡혀 있다. /연합뉴스

■ 취임 한달 맞은 김황식 국무총리

공정사회 주력…무난한 안착 독자 리더십 구축여부 주목

김황식 국무총리가 1일로 취임 한 달을 맞았다.

일단 김 총리는 대법관과 감사원장 등 오랜 공직 생활을 바탕으로 국정 전반에 대한 업무 파악 속도가 빨라 비교적 무난하게 안착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김 총리는 이날 국회 '데뷔전'인 대정부 질문에 출석, 야당의 공세를 무난하게 넘겨 합격점을 받았다.

총리 지명 당시, 이명박 정부의 집권 후반기 국정 운영 과제인 '공정 사회'를 실현할 적임자로 받아들여진 김 총리는 지난 한 달동안 주말도 반납한 채 업무에 매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김 총리는 지난달 6일 첫 지방 방문지인 경남 진주에서는 배추 값 폭등과 관련해 농협 관계자들과 대화를 나눴고 같은 달 11일에는 대전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를 방문, 다문화가족 문제를 살폈다.

같은 달 23~24일엔 고향인 광주·전남 지역을 방문하면서 4대강 사업이 진행 중인 영산강 승촌보 공사 현장을 둘러보고 지역 인사들과 만나 현안을 청취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김 총리가 단순한 '의전총리'의 역할에 머무르지 않겠느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법관 출신이라는 점에서 행정 경험은 물론 정치적 감각이 취약한 면이 없지 않아 정부 부처 장악과 독자적 리더십 구축에 어려움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총리실 주변에서는 취임 한 달을 맞이한 만큼 김 총리가 자신이 그동안과는 차별되는 행보와 독자적인 리더십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광주·전남지역에서는 정부 수립 이후 최초의 전남 출신 국무총리라는 점에서 이명박 정부의 총리로 머무르기 보다는 지역 갈등 해소와 사회 통합 등에 상당한 역할을 통해 지역의 '자존심'을 세워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전남 최초의 국무총리라는 점에서 지역민의 기대가 남다르다"며 "지역 갈등 해소 등 통합의 리더십 등을 통해 사회의 귀감이 되는 국무총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광주바이블칼리지 신(편)입생 추가 모집
GWANGJU BIBLE COLLEGE &THEOLOGICAL SEMINARY

교 수 진

NO	교수명	과목	경력 및 현직
1	이환수 (이사장)	철학	미국 일리노이대학졸업, 5.18북미주대표, TX한인회장&상공회의소 회장, 한미인권연구소장, 광주바이블칼리지 이사장, 세린사회교육원 대표
2	최정만 학장	신약/선교학	서울대졸업, 미국Fuller대(석,박사), 이화여대, 총신대, 숭실대, 고신대강사, 광신대교수역임, 한국복음주의선교학회장, 한국신학자 최우수학술대상수상
3	채영애	실천신학	미국미시건대학교(학사), 영국브리스톨대학교(석사), 미국존합킨스대학교(석사), 미국콜럼비아대학교(Ph.D), 미국쥴리안센터(연구원), 미국풀러신학대학원(연구원), 총신대학교 신교대학원(교수), JDI대표
4	윤영혁	조직/신학	총신대학교(M.Div.), 미SouthWestern대학교(Th.M), Regent대학교 조직신학(Th.D)
5	김명호	구약학	전남대학교졸,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M.Div.), 전남대학교강사, 이스라엘히브리대학교 고대근동어(Ph.D), 광신대학교구약학교수역임,
6	전원호	신약학	고신대학교, 고려신학대학원(M.Div), 화란깜펀신학대학(박사과정), 독일브레멘한인교회 담임, 벨기에브뤼셀한인교회, (현)광주은광교회 담임
7	조태익 (교목실장)	구약학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M.Div.), (현) 담양읍교회 담임
8	임 영	선교/영어	조선대학교 (영문학 학사, 석사, 박사) 선교총회(M.Div), 조선대, 동신대, 호신대 출강. 광주여자대학교 겸임교수, 세린사회교육원부설 국제어학원장
9	김응렬	실천신학	한국성서대학교, 총신대학교신학대학원, 미국ITS 목회학(박사과정), 한국사회교육원 교수,(현)세계복음사역원원장, 한국사회교육원 중앙COT강력치유훈련 원장, (현)남양주 푸른초장교회 담임목사
10	고경태	조직신학	총신대신대원(M.Div.)총신대학교(조직신학 Ph.D)취득, (현)주님의교회 담임
11	신동구	실천신학	개신대학원대학교(M.Div., Th.M)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Th.M), 예루살렘성서대학(Th.D), 백석대학교(Th.D), (현)주님의교회 담임
12	김봉진	윤리학	호남신학대학교, 장로회신대원(M. Div.), 호남신대(Th.M), 장신대대학원(Th.D)(현)담양개동교회 담임
13	손순용	사회복지학	전남대학공과대학, 경영대학원(인사관리) 동신대학교사회복지학박사, 전남도립대학교수
14	정현필 (연구처장)	창조과학	한국항공대학교항공공학박사, 조선이공대학교수, 창조과학회이사
15	강대영	실천신학	전남대학교졸, 개신대학원대학교(M.Div.), 미국 국제신학대학교(Th.D.), (현)월송교회 담임
16	최사채	실천신학	개신원대학교(M.Div.), (현)영광엽산제일교회 담임
17	김원식	교회 음악	전남대학교음악학과, 미국워싱턴대학교졸, (현)호신대학교강사
18	이길수	부흥 신학	감리교신학대학원졸업. 예수전도단(YWAM)DTS훈련강사, 새물결선교회부회장, 강사, (현)광주예향교회 담임
19	진장환	기독교 교육	개신원(M.Div.), 미 I.T.S 목회학 박사학위 과정, 서울경기신학교수

세린사회 교육원
• 웃음 치료(월 5만원) • 텝스 영어(월 10만원)
• 영어 성경(월 10만원) • 워십 찬양리더자 교육(월 7만원)

Th.M.(신학석사)과정 개설

1년에 최단기 학위과정 완성 3개월 단위 한 학기에 8학점(전공필수 4학점, 전공선택 4학점) 이수하면 3학기에 졸업이수학점을 마치고 3개월간 논문완성해서 12개월에 학위 완성함.
최고의 교수진 선교, 치유상담, 구약, 고대근동어 분야에서는 한국최고의 교수진.
학비 저렴 타 대학 학비의 1/2 내지 1/3
진로 보장 ① 이 과정에 입학자는 100% T/A(교육조교) 자격증을 수여하고 최대 6회까지 지도교수의 전공강의 1/2을 현장강의 함.
② 우수졸업생 해외 Ph. D. 과정 유학을 보장하고 졸업생 전원 학부강의를 맡을 수 있는 기회부여.
③ 타 대학 출강 적극 추천
④ 수업시간:2주1회(학생편에서 시간이 있을 때 수업시간 자유)
모집 안내 10명까지 인원 제한. 지원 분야 (선교신학. 구약신학, 신약신학, 조직신학, 실천신학, 역사신학)
입학 문의 학장 직접상담 ☎ 010-7413-1215, 061) 381-0000,1365

학부 및 신대원(M.Div)과정

1.국내신학교 중 최고의 시설, 최적의 교육환경
- 300명 수용 생활관, 체육관, 채플(예배당), 식당, 도서관, 교수연구실, 개인지도실 각종 연구소, 수영장, 산책로
2. 호남 최고 수준의 교수진 - 선교, 치유, 상담, 구약, 고대근동어 분야에서는 한국최고의 교수진
3. 최 단기 학위과정 완성 - 대학 학부는 2년 대학원은 1년에 졸업
4. 대 교단 총회인준신학교 - 졸업생 전원 100% 목사안수, 선교사파송(책임진로지도)
5. Venture Spirit
- 전문성과 은사 그리고 Venture Spirit 를 가진 전문가(교수, 목사, 선교사)로 하여금 국내 또는 해외 선교지역에 교회를 개척케 한 후 그곳에 GBC졸업생들을 심어준다.
6. 특수지역, 특수교회를 위한 맞춤형 신학교육
- 국내 도시 목회, 성목회 산골목회, 농어촌목회, 해외 선교별로 중국선교, 몽골선교, 중앙아시아 선교, 일본선교, 베트남선교, 캄보디아선교, 태국선교, 인도선교, 파키스탄선교, 중동선교.. 등 각기 다른 특성을 가진 지역 복음 사역자들을 위한 맞춤형 특수교육과 훈련실시.
7. 국내에서 가장 저렴한 학비
- 전교생 100%에게 장학 혜택이 주어지고 학생 본인 부담은 최소화
8. 해외교회 인턴십 제도
-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필리핀 등 해외 교회와 자매결연을 맺고 해외 자매교회에 단기 인턴쉽을 보낸다. (단기해외 현장 학습 및 실습)
9. 해외 대학들과 자매관계를 맺고 매년 심포지엄 포럼, 선교대회를 공동으로 개최한다.
10. 복수 학위제 실시
- 모든 학위 과정의 절반은 국내 GBC에서, 나머지 절반은 해외 자매 학교에서 이수하고 학위는 양국에서 각각 준다. (한 과정 두개의 학위)

뜨거운 영성과 날카로운 지성의 조화
광주바이블칼리지
Gwangju College &Theological Seminary
http://www.gjbc.kr
전남 담양군 무정면 성도리 산 72번지

평생교육의 1번지
세린사회교육원
후 원 : Chemolee Lab, Corp.(U.S.A)
TEL. 061) 381-1365/0000
FAX. 061) 381-1367